



도, 중기부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기업부에서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고 자발적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축제' 기간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의 의미를 함께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홍보행사에서는 10만원 이상 기부시 전북의 오미자 청과 이강주가 추가로 증정되는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백년가게 식사권'이 전북 고향사랑기부제 대표 답례품으로 소개됐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장기 운영 중인 우수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지정·지원하는 제도로, 전북 고향사랑기부 후 답례품으로 '백년가게 식사권'을 선택하면 전주 PNB풍년제과, 군산 상용버전 등 도내 13개 업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천연꿀 참기름 청차제품, 친환경 물술 등 다양한 답례품이 전시됐으며, 약과와 식혜 등 일부 품목은 시식·시음 코너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오상근 기자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 대표기업 육성

**바이오진흥원, 37개사에 지정서 수여
사업 운영 안내·현장 소통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지난 4월 22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출발을 알리고, 선정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진흥원 관계자, 선정기업 대표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표기업 지정서 수여를 비롯해 올해 사업 운영계획 안내와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교육, 향후 추진 일정 공유, 선정기업 제품 전시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생명·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개 기업이 대표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19개사는 기존 지원 기업, 18개사는 신규 선정 기업으로 구성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이번 수여식을 통해 사



업 추진에 앞서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준비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수여식은 대표기업 지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다비치 평화사거리점, 밝은 세상 나눔 안경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승경)는 지난 22일, 공단 자원봉사자로 활동중인 다비치안경 전주평화사거리점(대표 이창하)으로부터 보호대상자 20명을 위한 안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지원위원회 김신숙 위원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성사됐다. 김 위원은 보호대상자들을 상담하며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과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했고 이를 돕기 위해 공단 자원봉사자로 활동중인 이창하 대표와 공단을 연결하며 나눔의 다리를 놓았다.

이창하 대표는 경제적 사정으로 시력 교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돕고 대상자들이 세상과 더 밝게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개별 맞춤형 안경을 지원했다. 안경은 개인의 눈 상태에 맞는 안경을 직접 제작해 29일 전달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고객만족도 조사 '전 부문 S등급' 쾌거

외래·입원·교육·연구 모두 최고 평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재경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외래, 입원, 교육, 연구 등 전 영역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54개, 기타공공기관 112개 등 총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대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입증했다. 병원 측은 이번 성과가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진료 프로세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 환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힘써 왔다.



특히 고객경험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중심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다. 고객만족 제언제도와 국민제언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객의 소리(VOC) 분석과 고객응대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또한 환자경험리더 운영과 외래 간호사 대상 워크숍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개선 역량을 강화했다. /오상근 기자



제43기 진안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사)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회장 구동수)는 23일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강당에서 '제43기 진안군 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입학식에는 입학생 70명을 비롯해 이경영 진안부군수,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 진용태 전북도의원, 김창주 대학장, 노인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응원했다.

올해 노인대학은 4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9회 44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노인건강, 대인관계, 문화 및 예술, 교양, 자기개발, 현장교육 등을 구성되며, 어르신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안전내부통제 강화... 전기안전공, 감사협의회 출범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공공기관 감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허정환)는 지난 22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1차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안전 분야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감사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기관 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환경 강화를 위한 감사기구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감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 분야에서의 실효성 있는 감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안전 분야 감사법 공유를 비롯해 교차감사를 통한 감사의 객관성 확보, 우수·모범사례 확산, 적극행정 지원 및 갑질 근절 문화 정착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감사 역량을 높이고 공공부문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여성안전 실무협의체 회의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22일, 시 가족센터에서 여성과 아동이 범죄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안전재단과, 도시과, 남원경찰서 등 안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기관 및 부서의 팀장급 실무위원들이 참석하여 지역 내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부서간 협업을 통한 집중적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부서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남원형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반기별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내장산 국립공원 숲속 여행... 정읍장애인복지관, 체험 활동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이용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1일 이용자와 자원봉사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장산 국립공원 일원과 입산물 체험단지에서 지역사회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BK생태나누기 사업의 일환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숲속 여행' 탐방 과정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산림욕과 숲 산책을 진행하고, 국가생태관광지인 솔티숲을 탐방하며 생태 환경을 체험했다. 이어 솔티 방문자센터에서 식물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

또한 입산물체험단지 내 차향문화관에서는 다식 만들기과 차 마시기 체험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숲 탐방과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센터 이용자는 "내장산숲 소나무 향이 좋고 마음도 편 안했다"고 소감을 전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차를 마시고 다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신기했고 평소 쉽게 해 보지 못하는 활동을 하게 되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숲속 여행은 이용자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지역의 다양한 생태·문화 자



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이용자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사회·문화 체험 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2026 김제자원봉사대학 졸업식 성료

김제시는 김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윤권)가 23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 김제자원봉사대학 졸업식을 개최하고, 약 2개월간 이어진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김제자원봉사대학은 지난 2월 28일부터 이날까지 매주 목요일 총 9주간 운영됐으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교육과 현장 적용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날 졸업식은 교육생들의 최종 평가회를 시작으로 수료증 수여, 졸업생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다짐을 내걸었다. /김제=곽태근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우훈)은 23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중인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체 대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2026년 상반기 관계기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교육지원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읍경찰서와 협력하여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구조 장치 요건, 안전교육 등으로 집중적으로 점검 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했으며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했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남원시 도동동,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 마무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했던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보행보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도동동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낙상 사고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 지역안전 핵심인력 재난대비 역량 강화 교육

부안군이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안전력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2026년 재난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80여명을 대상으로 국립재난안전교육원 전 선임교수 차정희 강사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내용은 △재난 유형별 대응요령 숙지 △현장 대응 능력 향상 △재난대처 사례·시시점 △재난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서 부안소방서 예방안전팀 강희훈 소방교는 △응급처치 기본교육 △심폐소생술 이론·실습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부안=김석진 기자